



The Chosun News

朝鮮日報

July 16, 1999

「대학입시 위한 에세이」 전용 웹사이트

【뉴욕】 우수한 성적에 비해 작문 실력 부족으로 아이비리그 진학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인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웹사이트가 생겼다. 웹사이트 주소는 myEssay.com.

이 웹사이트는 예일대학교와 MIT출신의 파트너들이 만들었다. 특히 이들은 아이비리그 출신이기도 하지만 출신학교에서 대학 진학원서를 심사하던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한인 교육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이 역대 최고의 원서접수를 기록,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문이 입학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작문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가 생겨 예일, 예이 전문가로부터 성적이 뛰어난 한인 학생들이 작문 실력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 웹사이트는 연습 작문서부터 Interactive한 서비스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대학원서 위주 작문을 인터넷을 통해 보내면 전문가들이 검토 수정해준다.

문의:212-714-3514